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특성 변인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 분석*

전현정** · 정혜원***

초 록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진로성숙도와 다양한 학교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학생이 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다층 구조를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 4차년도 자료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층경로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학교운영과 이에 따른 교사의 열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열의를 갖고 학생을 대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 정도는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기의 학생이 자신의 부모, 친구,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학생과 교류하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이 동기부여를 외적 요인이 아닌 내적 요인에 의해 받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 학생이 내적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진로성숙도, 학교 특성 변인, 학생 특성 변인, 다층경로모형

* 이 논문은 2017년 제11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제1저자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발전과 세계화·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는 개인과 국가에게 요구되는 인재상을 변화시켰고(교육부, 2017) 창의력·융합적 사고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의 제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우리 사회는 기존의 지식체계와 기술이 새로운 형태로 융합·조직되는 과정에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Autor, Levy & Murnane, 2003). 결국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의 변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은 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교육부, 2017).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기부터의 진로개발역량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적성 탐색의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이에 기반을 두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 OECD, 2004). 이에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 및 적성과 부합되는 진학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개인 맞춤형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다(교육부, 2017). 더욱이 이러한 진로교육은 학생 개인이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교육부, 2015)을 향상시키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진로에 대한 자기주도적 역량을 의미하는 진로성숙도의 향상은 학생 개인의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김강호, 2009; 송민경, 2011; 송인섭, 남궁정, 김효원, 2006; 이가영, 김신영, 2009).

청소년기는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발달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김충기, 2002)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고 어떤 학교에 진학하며 어느 직업을 선택할지와 같은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선택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양상은 평생의 진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임은미, 2004). 따라서 청소년기의 올바른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성숙도의 증진은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노력은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과 사회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폭넓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남수정, 2011).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의 기본 가정에 의하면 한 개인은 전체 체계의 부분으로서 개인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고려되어 질 수 없다. 특히 개인의 행동과 발달은 개인적 특성 이외에 다른 개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구조를 모두 통합한 상황적 이해로 해석될 수 있다 (Rogoff, 1990).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부모, 친구, 교사 등의 조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김유미, 권윤정, 2015; 임효진 외, 2016;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와 다양한 학교 및 학생 특성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실증적 분석은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진로성숙도 향상의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Vondracek, 2001)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심 영역에 한정하여 수행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임현정, 2016),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다양한 배경변인을 고려하여 각 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개인·사회·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청소년기 중 직업적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진로성숙도 발달 차이가 학년 간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인(서진희, 이제경, 2009) 중학생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특성 변인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인과 학교차원의 교육격차 감소와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진로성숙도

청소년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과 직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생애 전반에 대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과정이다. 특히 Super(1963)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잠재적 진로와 현실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시기이다. Super는 진로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성숙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며 진로성숙을 진로발달 단계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충기(2002)는 ‘진로의식, 탐색, 의사결정에서의 발전적 변화로 자신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주변 환경을 의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하여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진로성숙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현옥(1989)은 진로성숙을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주변 환경과 자아를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가는 준비의 정도’라고 하였다. 이외의 많은 학자들은 진로성숙을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의 올바른 진로준비 정도, 상대적 위치로 보고 있다(이희영, 2003; Hoyt, 1976).

여러 학자들의 진로성숙도 정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만의 신념과 의지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며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은희, 조아미, 2017). 더욱이 오늘날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과정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부모, 교사와 같은 타인에 의한 수동적 진로선택 과정과 이에 따른 적성 및 진로문제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갖는 것이다(이문희, 신효정, 2015). 즉 자신의 진로에 대한 독립적인 신념과 의지에 의해 진로를 선택하고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며 후에 진로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중도 포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하혜숙, 2000). 이는 진로 선택의 과도기를 겪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계획하고 독립적으로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진로성숙도 향상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더욱이 진로에 대한 자기주도적 역량을 의미하는 진로성숙도의 향상은 학생 개인의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김강호, 2009; 송민경, 2011; 이가영, 김신영, 2009).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 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개인·사회·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학교 특성 변인

청소년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와 관련지어 생각하며 이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은 인생 전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즉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 지원방안들이 효과적이며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생의 다양한 개인·사회·환경 변인들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환경의 다층 구조 특성을 고려한 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개인 차원만의 논의가 아닌 개인과 학교를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하고 발달한다(Bronfenbrenner, 1979). 더욱이 진로성숙도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 환경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남수정,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임현정(2016)은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의 초등학교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교사열의에 대한 학생의 인식, 교사협동 등의 과정요인들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미옥과 정연옥(2010)은 실험연구를 통해 교과통합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희수(2007)의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교과목으로써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며 학교의 교사특성, 학교의 특성, 학교 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은 그 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으로 학교의 설립유형을

인구통계변수로 활용한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서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준규, 1999; 장현진, 2018).

더욱이 학교 교육 효과의 중요한 요소인 교사특성 변인은 학교가 지니고 있는 학교조직문화, 풍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이석열, 2005; 채영병, 정철영, 2006). 교사가 지니고 있는 특성 변인들이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임현정, 2016) 교사특성 변인과 학교 조직풍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교사들은 교과 및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일수록 몰입하게 되고 열의를 갖게 된다(박균열, 2008; Firestone & Pennell, 1993). 즉 학교에서의 형식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으로 변화된다면 교사는 해당 영역에 책무성을 인식하고 몰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임언 외, 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실시는 학교와 교사가 받게 되는 업무 부담이 많기에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3.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학생 특성 변인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장대운, 김충기, 박경애, 김진희, 1996). 자신의 연령 수준에 주어지는 진로 문제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의미하는(Super, 1963; Gottfredson, 1981)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학습과 과제를 자신의 성장을 위한 부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황매향, 임은미, 2004). 이와 관련하여 진로성숙도와 일에 관한 동기간의 관계를 분석한 Farrell와 Horvath(1999)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와 내재적 동기는 정적 상관, 외재적 동기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학습동기와 자기결정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과 진로성숙도와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강혜정, 강성현, 임은미, 2016; 이문희, 신희정, 2015). 이처럼 학업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에게 학업은 진로발달 과제의 한 부분이며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진로성숙도를 높여주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 학생은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학습하고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Senge(2006)의 사회관계적 시각에서 청소년이 맺고 있는 부모, 교사, 교우관계는 공동체 내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형성되고 신뢰와 규범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 이는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자본으로 활용되어 청소년기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이가영, 김신영, 2009). 학생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부모, 교우,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유미, 권윤정, 2015; 임현정, 2016;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더욱이 부모, 교우,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심리적 학습 환경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유미, 권윤정, 2015; 봉미미 외, 2008; 이문희, 신호정, 2015; 임호진 외, 2016). 청소년기 학생의 사회관계 변인과 함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주요 변인 중 하나는 성별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이하다(김소라, 문승태, 2017; 김종성, 이병훈, 2010; 신선아, 전종철, 2015). 즉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심리적 특성인 동기변인과 부모, 교우, 교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변인들,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부모, 교우, 교사와의 관계, 동기 변인과 같은 학생 개인 특성 변인을 학생수준의 변인으로 활용하고 학교의 특성 변인인 설립구분,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 교사특성 변인, 학교특성 변인인 역량기반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중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정도 변인을 학교수준의 변인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학생 및 학교수준의 측정변인들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적·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은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 중 층화군 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통해 추출되고 연구에 동의한 7,324명을 2013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추적·반복 조사한 종단 연구 자료이다.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직업적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진로성숙도 발달 차이가 학년 간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서진희, 이제경, 2009).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3차년도(2015년)~4차년도(2016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및 학생수준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전체 사례 남학생 3,319명, 여학생 3,4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학교정보인 학교ID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한 중학생 6,748명, 학교 1,160개교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진로성숙도

중학생이 지니고 있는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4차년도(2016년)에 조사된 학생역량조사지의 자기관리 역량의 진로성숙도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변인은 KEDI 학생 역량 조사 연구의 학생설문지를 활용하여 개발한 학생역량조사지의 진로성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김양분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정된 문항들, 즉 진로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계획성 3문항(예, 미래에 어떤 직업이 전망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독립성 3문항(예,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진로계획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행동 4문항(예. 내가 알고 있는 진로 지식이 정확한지 알아본다)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학교수준 변인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학교수준 변인으로는 학교의 설립특성, 교사특성, 학교운영 및 정책 변인이다. 이 중 교사특성 변인으로는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측정한 학생설문지의 교사열의 4문항(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의 학교별 평균을 산출하여 학교수준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학교운영 및 정책 변인으로는 학교 조사지의 학교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학교교육 활동을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학교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활동 정도 4문항(예. 학교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량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한다)을 활용하였다. 학교 특성 변인으로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량 기반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변화 문항 중 본 연구와 밀접히 관련된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1문항(예.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 귀교에서 교육과정-진로교육 간의 연계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을 학교수준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이 때 모든 변인들은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변인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값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학생수준 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와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특성 변인을 학교와 학생수준 변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중 학생수준 변인은 학생 특성 변인, 학생들의 가정·학교 내에서 맺고 있는 관계 변인과 학생 내적 심리 변인을 활용하였다. 이 중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학생들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부모(3문항), 친구(4문항), 교사(6문항)와의 관계 변인(김유미, 권윤정, 2015; 임현정, 2016;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을 활용하였고 학생의 내적 심리 변인은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외적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변인(강혜정, 강성현, 임은미, 2016; 이문희, 신호정, 2015)을 사용하였다. 특히 외적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변인은 외적 조절동기 3문항(예. 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서 공부한다)과 내재적 조절동기 4문항(예. 공부하는 것을 즐기기에 공부한다)을 활용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학생 및 학교수준 변인

구분	세부영역	변인	변인 값	신뢰도 (Cronbach's alpha)
종속변인	진로성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01
		교사특성 (교사열의)		.929
	학교의 설립특성	설립유형	0=국공립, 1=사립	-
학교수준 독립변인	학교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활동		1= 전혀 활발하지 않다 2=활발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활발하다 5=매우 활발하다	.857
		학교 특성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정도)	1=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2=이루어지지 않는다 3=보통이다 4=활발하게 이루어진다 5=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성별	0=남자, 1=여자	-
		교사와의 관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17
	교우관계	또래애착		.870
학생수준 독립변인	부모-자녀 관계	상호작용		.851
		외적 조절동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856
		내재적 조절동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매우 그렇다	.884

자료: 제3~4차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2015~2016년) 데이터.

3.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의 3차~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다양한 학교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더욱이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 학교, 학교장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구축된 자료이다. 즉 학생이 교사 또는 학교에 내재된 관계로 내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 분석 자료의 ICC(intraclass correlation)는 .03으로 기준인 .05보다 작은 값이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의 경우, 비록 작은 ICC 값을 갖더라도 자료의 다층구조를 고려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Julian, 2001; Selig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다층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성숙도와 학교 및 학생 특성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층경로모형(multilevel path analysis)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Kaplan, 2008). 특히 다층경로모형은 개인들 간의 집단 내 상관을 고려하여 표준오차를 교정하는 다층모형 접근을 경로분석에 적용한 연구방법으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변인 사이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aplan, 2008).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모수 추정을 위해 Mplus 7.4(Muthén & Muthén, 2017)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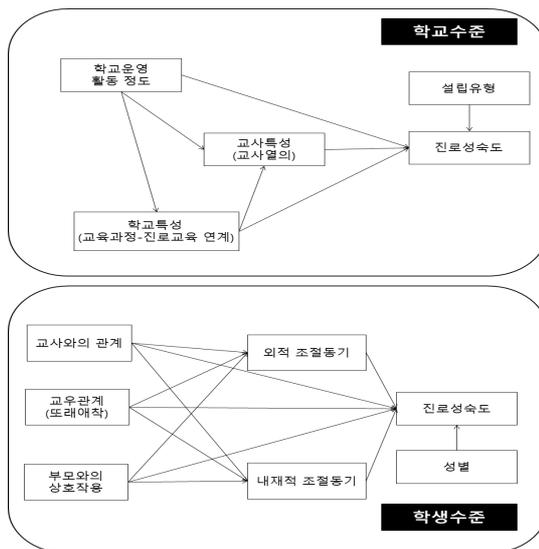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의 3차년도~4차년도 자료(중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조사에서 진로성숙도와 학교 및 학생수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분석 자료의 왜도(skewness)는 $-0.881 \sim 0.387$, 첨도(kurtosis)는 $-0.263 \sim 2.588$ 로 나타났기 때문에 '1왜도|<2, 1첨도|<4'의 기준(Hong, Malik & Lee, 2003)을 충족하여 모든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모두 충족하였다.

학교수준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운영 활동 정도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연계의 일부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열의와 학교운영 활동 정도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와 진로교육 연계와 학교운영 활동 정도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내의 교사의 열의는 학교운영 활동 정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학교운영 활동 정도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 정도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교수준 측정변인들의 평균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구성원의 운영 활동 정도, 교사의 열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은 수준임을 학교수준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설립유형과 학교운영 활동의 정도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부적이며(*point-biserial* $\gamma = -.102$) 그 정도가 작은 수준의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Rosenthal, Rosnow & Rubin, 2000) 이는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의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학생수준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변인들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적 조절동기와 그 외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외는 반대로 내재적 조절동기와 그 외의 변인들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학생의 부모·교사·교우관계와 진로성숙도와 외적 조절동기는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내재적 조절동기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교

사·교우관계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 관계망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학교수준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와 기술통계치

	학교운영활동	교사열의	진로교육연계	진로성숙도
교사열의	.049***			
진로교육연계	.522***	-.014		
진로성숙도	.004	.154***	.010	
평균	4.291	4.098	4.205	3.713
표준편차	.582	.333	.686	.670
왜도	-0.881	-0.144	-0.544	0.038
첨도	1.765	2.588	0.312	-0.263

*** $p < .001$

표 3
학생수준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와 기술통계치

	외적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교사관계	교우관계	부모관계	진로성숙도
내재적 조절동기	-.140***					
교사관계	-.216***	.362***				
교우관계	-.200***	.258***	.492***			
부모관계	-.212***	.299***	.427***	.406***		
진로성숙도	-.163***	.310***	.271***	.253***	.255***	
평균	1.811	2.547	3.780	3.981	3.874	3.713
표준편차	.641	.710	.747	.740	.860	.670
왜도	0.387	0.046	-0.140	-0.444	-0.497	0.038
첨도	-0.121	-0.148	-0.072	0.013	0.001	-0.263

*** $p < .001$

2. 진로성숙도와 학교 및 학생 특성 변인의 관계

1) 모형 적합도

본 연구의 다층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검정,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Byrne, 1998)], SRMR(the Standardized Root-Mean-Square Residual)를 사용하였다(Kline, 2015). 이 때 CFI는 .90 이상, RMSEA와 SRMR은 각각 .06, .08 이하의 값을 가질 때 해당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라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그러나 Hsu, Kwok, Acosta 그리고 Lin(2015)은 Hu와 Bentler가 제안한 기준 값은 단층 모형을 위한 값이므로 다층 모형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하며 다층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층 수준의 SRMR을 참고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으며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RMSEA	SRMR	
				학교수준	학생수준
85.765***	5	.970	.049	.011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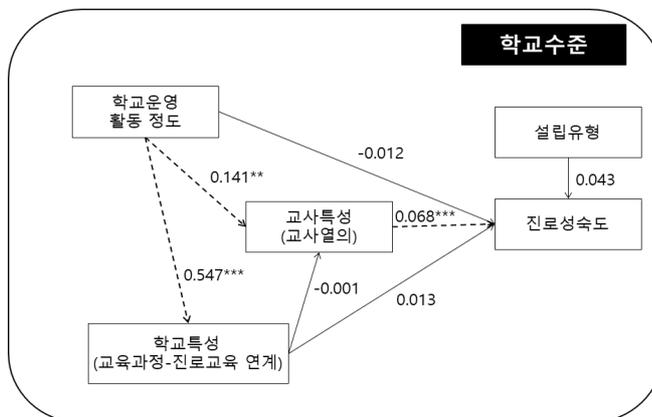
*** $p < .001$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진로성숙도와 학교 및 학생수준의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를 학교수준과 학생수준으로 나누어 각 그림 2와 그림 3에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결과에 제시된 다양한 경로는 해당 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먼저 학교수준 변인들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교사의 열의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0.068$, $p < .001$)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가 교사의 열의($\beta = 0.141$, $p = .006$)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의 연계 정도($\beta = 0.547, p < .001$)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그 학교에 속해 있는 교사의 열의가 높고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연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교사의 열의는 그 학교의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연계 정도는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교 특성인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연계 정도는 교사의 내적 특성인 교사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데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학교의 설립유형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의 여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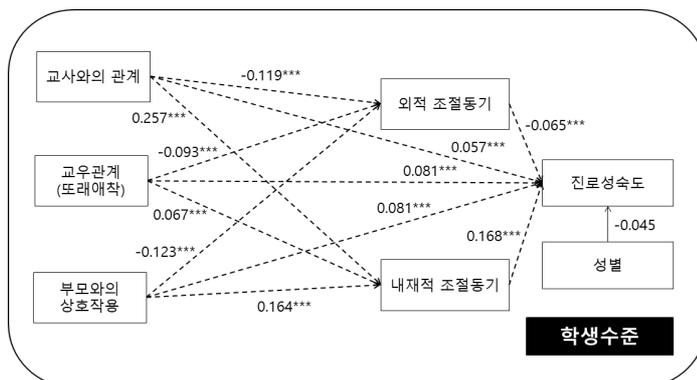
** $p < .01$, *** $p < .001$

그림 2. 학교수준 변인들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 다음 학생수준 변인들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데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학생 특성 변인인 성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청소년기 학생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인 교사관계($\beta = 0.057, p < .001$), 교우관계($\beta = 0.081, p < .001$), 부모관계($\beta = 0.081, p < .001$)와 학생의 내적 변인인 내재적 조절동기($\beta = 0.168, p < .001$)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외적 조절동기($\beta = -0.065, p < .001$)만이 진로성숙도를 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 학생이 내재적 조절동기가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면 그 학생이 진로선택에서 갖게 되는 성숙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진로성숙도에 부모·교우·교사관계 중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관계가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내적 요인에서는 외적 조절동기가 내재적 조절동기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관계($\beta = -0.119, p < .001$), 교우관계($\beta = -0.093, p < .001$), 부모관계($\beta = -0.123, p < .001$)는 외적 조절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는 반대로 내재적 조절동기에는 교사관계($\beta = 0.257, p < .001$), 교우관계($\beta = 0.067, p < .001$), 부모관계($\beta = 0.164, p < .001$)가 유의한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학생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내적 요인에 의해 동기가 높아지게 되고 이와 반대로 외적 요인에 의한 동기가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교우·교사관계가 내재적 조절동기와 외적 조절동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진로성숙도와는 다르게 교우관계의 영향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적 조절동기는 부모관계가 내재적 조절동기에는 교사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 $p < .001$

그림 7. 학생수준 변인들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학교 및 학생수준 독립변인들의 직접, 간접, 총효과는 각 표 5와 표 6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학교수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 정도, 교사열의 중 교사열의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직접효과($\beta = 0.071, p < .001$)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열의 변인 이외의 학교구성원의 학교활동 운영 정도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정도는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학교운영 활동을 하거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연계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간접효과 경로에 대한 학교수준 변인들의 분석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가 교사열의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10, p = .019$). 이러한 결과와 함께 학교수준 독립변인들의 경로계수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활동 정도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사열의를 매개로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 활동 정도가 활발할수록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가 높게 이루어지지만 이를 매개로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학교수준 변인들의 직접, 간접, 총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교사열의			0.010*	
학교운영활동	진로교육연계 → 교사열의	진로성숙도	-0.012	<.001	0.005
	진로교육연계			0.007	
진로교육연계	교사열의	진로성숙도	0.013	<.001	0.013
교사열의	-	진로성숙도	0.068***	-	0.068***

* $p < .05$, *** $p < .001$

학생수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교우·교사관계와 내적적 조절동기는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외적 조절동기는 부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관계($\beta = 0.051, p < .001$), 교우관계($\beta = 0.017, p < .001$), 부모관계($\beta = 0.035, p < .001$)가 내적심리 요인인 동기요인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수준의 특정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교우·교사관계는 모두 학생의 내적 심리요인인 외적 조절동기와 내재적 조절동기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관계들이 정적인 직접효과와 더불어 동기 요인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학생수준 변인들의 직접, 간접, 총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교사관계	외적 조절동기	진로성숙도	0.057***	0.008***	0.108***
	내재적 조절동기			0.043***	
교우관계	외적 조절동기	진로성숙도	0.081***	0.006***	0.099***
	내재적 조절동기			0.011***	
부모관계	외적 조절동기	진로성숙도	0.081***	0.008***	0.117***
	내재적 조절동기			0.027***	
외적 조절동기	-	진로성숙도	-0.065***	-	-0.065***
내재적 조절동기	-	진로성숙도	0.168***	-	0.168***

*** $p < .001$

V. 논의 및 결론

오늘날 세계화·정보화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지식체계와 기술이 융합·조직되는 과정에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Autor et al., 2003). 이에 교육부는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의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이 중 청소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기주도적 역량을 의미하는 진로성숙도는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발달의 중요한 단계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일 것이다(김충기, 2002).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양상은 평생의 진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임은미, 2004). 따라서 올바른 진로교육 및 진로관련 정책의 실현과 운영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진로에 대한 자기주도적 역량을 의미하는 진로성숙도의 향상은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김강호, 2009; 송민경, 2011).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및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 마련 및 실행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노력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Bronfenbrenner, 1979).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개인·사회·환경적 변인들을 학생이 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다층 구조를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수준 변인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분석 결과,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그 학교에 속해 있는 교사의 열의가 높고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연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열의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구성원들의 활발한 학교운영 정도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정도는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김희수, 2007; 임미옥, 정연옥, 2010)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가 높아진 교사의 열의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현정(2016)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지로 교사협동과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열의와 같은 과정요인들이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활동 정도가 진로성숙도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교사의 열의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김유미, 권윤정, 2015; 임효진 외, 2016)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의 열의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량 기반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변화로써 이루어진 학교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방법 및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생수준 변인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의 학생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인간관계 중 대표적인 사회관계인 부모·교우·교사관계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관계 변인은 진로성숙도를 직·간접으로 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욱이 학생의 심리적 요인인 외적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 학생이 자신의 부모, 친구,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며(김유미, 권윤정, 2015; 임현정, 2016;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청소년기의 학생, 특히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생과 교류하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외적 조절동기는 진로성숙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와는 반대로 내재적 조절동기는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학습을 수행할 때 동기부여를 외적 요인이 아닌 내적 요인에 의해 할수록 자신의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외적 조절동기는 감소하고 내재적 조절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소년기 학생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학교운영과 이에 따른

교사의 열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열의는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가 열의를 갖고 학생을 대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와 학생수 준에서 모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 정도는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 학생이 자신의 부모, 친구,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학생과 교류하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이 학습을 수행할 때 동기부여를 외적 요인이 아닌 내적 요인에 의해 받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내재적 조절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가정과 학교 내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부모, 교사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부모와 교사가 학생과 주기적인 대화 및 상담을 하고 학생 스스로도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 시 타인의 권유, 보상이 아닌 자신의 흥미와 의지와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 동기부여를 할수록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기 학생이 자신의 내재적 조절동기를 통해 학습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내면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담과 조언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기 학생들이 내적 요인에 의해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체험활동, 자료 등이 개발되고 확산 및 활용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학교운영 활동과 이에 따른 교사의 높은 열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학교교육 활동을 이루어가고 이에 따른 교사의 열의가 높아진다면 이를 느끼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협력적 태도 유지와 교장의 리더십, 교사가 열의를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부여 방안 마련 등 다각도에서 학교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의 활성화는 청소년기 학생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결정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공교육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이나 인성교육 등 여러 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등의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교육부, 2013).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교사의 재량에 의한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진로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정윤경, 김나라, 서유정, 2011). 이에 현재 이루어지는 학교 교과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는 실제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진로교육의 내용과 교육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학생의 의견 수렴 과정 및 참여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닌 타당한 진로교육, 인성교육 내용의 구성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교사가 유연하고 적절하게 이를 실행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 특성 변인인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정도는 한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 자료가 지닌 한계로 향후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간의 연계 정도를 측정하는 세분화된 척도가 활용되어 자료가 수집된다면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시기의 단기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장기적 관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성숙도와 다양한 학교 및 학생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학생의 발달 추이에 따른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혜정, 강성현, 임은미 (201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 가능성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7(2), 151-175.
- 고은희, 조아미 (2017).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 행동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30(2), 1-16.
- 교육부 (2013.12.). **201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8&boardSeq=5168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6&s=moe&m=040103&opType=N>에서 2017.9.11.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5.9.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07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10&s=moe&m=0503&opType=N>에서 2017.6.28. 인출
- 교육부 (2017.1.). **2017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안)**. 세종: 교육부 진로정책과.
- 김강호 (2009).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8(4), 183-200.
- 김소라, 문승태 (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27-48.
- 김신영, 최운실 (2014). 진로체험학습에서 학생·교사의 주도성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71-93.
- 김양분 외 (2016). **2016 한국교육종단연구-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13(IV): 조사개요 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유미, 권윤정 (2015). 개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층 모형의 적용. **인간발달연구**, 22(2), 93-111.
- 김중성, 이병훈 (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33-59.
- 김충기 (2002). 제2부 현대 사회의 청소년 교육: 직업세계의 변화 전망과 대학생의 진로지도. **한국의 청소년문화**, 2, 265-299.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김희수 (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35-46.
- 남수정 (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83-304.
- 박균열 (2008). 교사의 교육책무성, 몰입 및 수업활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21(2), 21-48.
- 박춘규 (1999). **공·사립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319-348.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53-2167.
- 송민경 (2011).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329-347.
- 송인섭, 남궁정, 김효원 (2006). 진로성숙 구조모형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2), 387-403.
- 신선아, 전종철 (2015).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7(3), 111-136.
- 오정아, 남부현 (2014).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2), 185-209.
- 이문희, 신호정 (2015). 부모의 학업지지와 자녀의 진로성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1(3), 131-151.
- 이가영, 김신영 (2009). The Strength of Weak Ties Revisited: 청소년의 사회연결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2(2), 21-45.
- 이석열 (2005). 학교조직문화와 도덕적 지도성이 교사의 전문적 수용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3(1), 71-92.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이론 연구 및 적용**. 서울: 학지사.
- 임미옥, 정연옥 (2010). 교과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2), 379-398.

- 임언 외 (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은미 (2004). 청소년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교육학연구**, 42(3), 325-348.
- 임현정 (2016).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의 영향. **한국교육문제 연구**, 34(4), 265-285.
- 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선혜연 (2016). 청소년의 진로경험 및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의 종단변화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상담학연구**, 17(5), 289-306.
- 장대운, 김충기, 박경애, 김진희 (1996). **청소년진로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장현진 (2018). 학교의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 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 정운경, 김나라, 서유정 (201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진로교육 연구**, 26(4), 25-47.
-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3), 195-220.
- 채영병, 정철영 (2006). 고등학교 교사의 역할갈등, 학교조직풍토, 자아효능감과 직무 만족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3), 223-250.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 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매향, 임은미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Autor, D., Levy, F., & Mumane, R.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279-133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arrell, S. J., & Horvath, P. (1999). Career maturity and work motivational orientation: Predictors of vocational choice certainty. *Guidance & Counseling, 15*(1), 16-21.
- Firestone, W. A., & Pennell, J. R. (1993). Teacher commitment, working conditions, and differential incentive polic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3*(4), 489-525.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oyt, K. B. (1976).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su, H., Kwok, O., Acosta, S., & Lin, J. (2015). Detecting misspecified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common fit indices: A monte carlo stud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2), 197-215.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ulian, M. W. (2001). The consequences of ignoring multi-level data structures in non-hierarchical covariance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325-352.
- Kaplan, D.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undations and extens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7). *Mplus User's Guide* (8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OECD (2004). *Carre Guidance and Public Policy*. OECD.
-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thal, R., Rosnow, R. L., & Rubin, D. B. (2000). *Contrasts and effect sizes in behavioral research: A correlational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ig, J. P., Card, N. A., & Little, T. D. (2008).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cross-cultural research: Multi-group and multi-level approach. In F. J. R. van de Vijver, D. A. van Hemert, & Y. H. Poortinga (Eds.),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s and cultures* (pp. 93-119). Mahwah, NJ: Erlbaum.
- Senge, P. (2006).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Rev. ed.). New York: Currency Doubleday.
- Super, D. E. (1963).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Vondracek, F. W. (2001).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vo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2), 252-261.

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school and student variables of middle school students*

Jeon, Hyeonjeong** · Chung, Hy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various school and student variable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do this, multilevel path analysis was applied to the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taken from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KELS) 2013 data.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active and cooperative school management of the school members and the eagerness of the teachers were found to be critical factors. In addition, the eagerness of the teachers in dealing with students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career maturity of students. However, the strength of the link between curriculum and career education at school did not directly affect career maturity, indic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inking method and details of the current curriculum and career education. Moreo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udents and their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was confirmed in the way that student become more independent in the process of choosing their own career. This indicates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people and agents interacting with students during adolescence. Additionally, the more students are motivated by internal factors than external factors, the more self-directed the students are in choosing their own career paths. This I indicates that students need to be motivated by internal factor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areer maturity amongst student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career maturity, school variable, student variable, multilevel path analysis

투고일: 2018. 6. 10, 심사일: 2018. 8. 3, 심사완료일: 2018. 8. 13

* This paper is based on remarks originally presented at 11th KELS conference in 2017.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